

‘비용 효율화’ KB카드, 상반기 순익 3위 재탈환

KB 상반기 순익 2189억 21% ↑
영업비용 0.7%, 이자비용 3.5% ↓
현대 순익 12% 늘었지만 4위 밀려
영업비용 9.2%, 대손비용 11.7% ↑

카드업계 순이익 3위 경쟁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현대카드에 3위 자리를 내줬던 KB국민카드가 올 상반기 다시 우위를 점하면서다. 양사 모두 두 자릿수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KB국민카드의 성장 폭이 현대카드를 앞질렀다. 다만, 영업수익 측면에서는 현대카드가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위 주도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7일 실적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상반기에 누적 순이익 218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현대카드의 상반기 순익은 같은 기간 11.9% 오른 1852억원을 나타냈다.

KB국민카드가 현대카드보다 가파른 순이익 증가세를 보이며 3위 자리를 되찾았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해 현대카드에 순이익 3위 자리를 내줬었다. 업황 전반이 둔화하는 가운데 현대카드가 회원수, 해외 신용판매액 등에서 고른 성장



KB국민카드 전경.

을 보이면서다.

이번 상반기 실적을 가른 변수는 KB국민카드의 공격적인 비용 효율화다. 올 상반기 KB국민카드 영업비용은 1조78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자비용이 3.5% 줄었다.

일반관리비와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도 감소했다. 일반관리비는 2914억원에서 2856억원으로 2% 줄었으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4188억원에서 3936억원으로 250억원(-6%) 가량 감소했다.

현대카드의 경우 비용 폭도 확대되면서 순이익 상승 폭이 제한됐다. 현대카드 상반기 영업비용은 2조876억원으로 전년



현대카드 전경.

/각사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특히, 대손비용이 3300억원으로 11.7% 급증했다. 총당금 비용이 줄어든 KB국민카드와는 대조적이다. 영업 확장을 위한 판매관리비(+5.0%)와 카드비용(+5.1%)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다만, 현대카드 매출(영업수익) 증가세가 KB국민카드를 앞지르고 있는 만큼 하반기 3위 주도권 다툼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KB국민카드의 상반기 영업수익은 2조76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 영업수익은 2조3372억원으로 10% 증가했다. 매출 규

모 자체는 KB국민카드가 여전히 크지만, 성장세 측면에서는 현대카드가 KB국민카드를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실제 현대카드는 “알파벳 카드, 디오렌지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회원 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는 하반기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우량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과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 KB페이(Pay)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및 뉴페이먼트 분야의 기술 기반과 파트너십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전성 지표는 양사 모두 개선세를 보였다. KB국민카드는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1.07%로 1분기 대비 0.14%포인트(p) 하락했다. 현대카드는 대환대출을 제외한 상반기 일반연체율 0.74%로 전년(0.79%)보다 0.05%p 개선됐다.

/안재선 기자
wtjts4187@metroseoul.co.kr



케이뱅크 “엄마한테 5만원 송금” ‘AI이체’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가 문장 입력이나 음성 명령으로 송금할 수 있는 ‘AI이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AI이체는 고객이 입력하거나 말한 내용을 AI가 분석해 송금 수취인을 찾고, 상황에 맞는 송금 금액까지 추천하는 서비스다.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최근 이체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어로 송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케이에게 5만원 보내줘”라고 입력하면 AI가 기존 송금 이력을 바탕으로 수취 계좌를 찾아 이체 화면을 구성한다. 자주 이용하는 계좌를 ‘엄마’ 등 별명으로 등록하면 해당 호칭만으로도 송금할 수 있다.

“조카용돈은 얼마가 적당해?”, “대리님 결혼하신대”처럼 입력하면 송금 목적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분석해 추의금이나 용돈 등 적정 금액도 제안한다.

이름이나 별명, 계좌번호 일부만 입력해도 기존 송금 내역에서 관련 계좌를 실시간으로 추천한다. 음성 이체 기능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송금은 고객이 이체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 진행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평소 사용하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송금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라며 “AI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만, 반도체 수출 2위로… 中 승용차 수입액 獨 제쳐

한은, 제조업 생산·공급망 지도
반도체 수출비중 10년새 11%→26%
수출액 1위 中, 비중은 40%로 줄어
中 승용차 수입 4년새 3.5%→37%

한국 제조업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1.1%에서 지난해 26.1%로 뛰며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수요로 대만이 반도체 수출 2위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산 승용차의 국내 수입액 비중은 37.2%까지 급증하고 대미 전기차 수출 비중은 5.2%로 축소되는 등 제조업 공급망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제조업 생산액은 2091조7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40.5% 늘었다.

반도체 생산액은 지난 2014년 74조원



Chat GPT가 생성한 반도체 및 전기차 수출 이미지.

에서 2024년 210조8000억원으로 2.8배가 됐고 제조업 생산 비중도 5.0%에서 10.1%로 두 배 커졌다.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반도체 비중은 16.7%에 달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849억7000만 달러로 2014년의 2.9배였다. 전체 수출 비중은 11.1%에서 26.1%로 확대됐다. 생산의 82.3%가 수도권, 14.7%가 충청권에 몰렸다.

AI 반도체 공급망이 확장되면서 수출 목적지도 달라졌다. 대만 수출액은 2022년 127억7800만달러에서 지난해 367억6900만달러로 2.9배 늘어 중국에 이어 2위가 됐다. 대만 비중도 9.0%에서 19.9%로 뛰었다. 엔비디아 GPU에 국산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탑재되고 대만 TSMC가 생산·패키징을 맡는 분업 구조가 굳어진 영향이다.

중국은 최대 수출국을 유지했지만 비중은 53.1%에서 40.3%로 낮아졌고 수출액도 758억800만달러에서 744억56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성장의 이면에는 장비·소재의 해외 의존이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입액은 2014년 234억달러에서 지난해 499억달러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장비 수입 중 네덜란드 비중은 26.0%로 일본(23.7%)과 미국(16.9%)을 앞섰다. 첨단 반도체용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네

덜란드 ASML에 의존한 영향이다.

자동차 산업도 외형은 커졌다. 생산액은 지난 2014년 9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55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완성차 수출액은 484억달러에서 지난해 719억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침투가 가팔랐다. 금액 기준 중국산 승용차 비중은 2022년 3.5%에서 지난해 37.2%로 뛰어 독일(37.0%)을 근소하게 앞섰다. 수입 전기차 31억7700만달러 가운데 중국산은 22억2300만달러로 70%를 차지했고, 전기버스 수입액 1억2200만달러는 전액 중국산이었다.

미국 보호무역의 충격도 뚜렷했다. 국내 전기차 수출 중 미국 비중은 2022년 33.6%에서 지난해 5.2%로 급락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수출 중 하이브리드차 비중을 11.6%에서 20.4%로 높여 대응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내달 서울 입주물량 3500세대… 올해들어 최대

전국적으로 1.4만세대 전월과 비슷
수도권 8924세대, 총 물량의 62%

다음달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3500세대 안팎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서울 전역에 영향을 미치진 힘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342세대로 집계됐다.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직방 관계자는 “입주물량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단지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은 반포 대단지

입주 영향이 큰 만큼 지역별 전월세 시장과 매물 변화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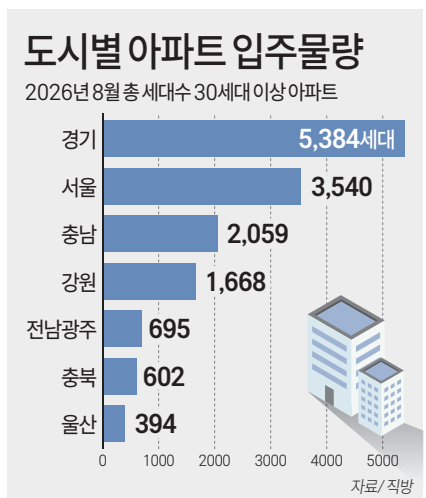
관계자는 또 “최근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변수를 함께 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시장에서는 최종 개편 방향을 확인하려는 관망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세계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924세대로 전체 입주의 62%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입주물량은 3540세대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 6

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세대)’ 입주가 서울 입주물량 증가를 견인했다. 이밖에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17단지(577세대)’, 마포구 신수동 ‘힐스테이트마포더퍼스트(488세대)’ 등이 입주한다.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의 입주 영향이 큰 만큼 서울 전역의 공급 확대 흐름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다.

경기는 ▲평택시 2230세대 ▲수원시 2178세대 ▲이천시 558세대 ▲과천시 418세대 등 총 5384세대가 입주한다. 평택 ‘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도아얌가(1700세대)’와 수원 ‘배교역팰루스(2178세대)’ 등 대단지의 입주가 예정됐



다. 인천은 이달 입주 예정 단지가 없다. 지방은 5개 지역에서 총 5418세대가 입주한다. 충청남도가 2059세대로 가장 많고, 강원특별자치도가 1668세대로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워크숍에 참석한 그룹사 임원들이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 활용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임원 대상 ‘AX 워크숍’

하나금융그룹이 그룹사 임원 14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실습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X)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임원들이 생성형 AI를 실제 경영과 금융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 조직 내 AI 전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영 현안 브리핑, 금융시장·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 작성, 회의자료 요약 등 실제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했다.

하나금융은 현재 수출입 업무 자동화, 기업여신 심사 지원,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임원뿐 아니라 현장 직원까지 AI 교육 대상을 넓히고, 생성형 AI와 금융 특화 버티컬 AI를 결합해 그룹 전반의 업무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AI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금융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딥순회 AI를 잘 활용하는 금융회사를 넘어 AI와 함께 일하는 금융그룹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